

연구보고(수시과제)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 한상철(대구한의대학교 · 교수)

공동연구원 :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 · 교수)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김혜원(호서대학교 · 교수)

문성호(중앙대학교 · 교수)

박철웅(백석대학교 · 교수)

방은령(한서대학교 · 교수)

송민경(경기대학교 · 교수)

송병국(순천향대학교 · 교수)

오승근(명지전문대학 · 교수)

유진이(평택대학교 · 교수)

조아미(명지대학교 · 교수)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보고서는 전국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가 작성한 것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지도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됨.
-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선행 연구 문헌을 통해 청소년 지도인력의 역할, 자격 검정 제도의 변천 과정,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체제와 검정제도 실태를 살펴봄. 둘째,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회원 대학 교수자 대표 12명을 선정, 집중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 개편 방향에 대해 협의함. 셋째, 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주요 내용

-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전문성,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변천 과정,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자격제도 현황을 검토함.
- 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39명(57.4%)이 응답. 그 주요 결과로 자격검정 과목에 대한 유지·확대를 통한 청소년지도사의 질적 향상, 청소년지도현장실습 과목 추가 등이 제시됨. 청소년지도사의 면접 필요성이 높았고, 면접시간 확대 및 권역별 면접 실시 등 대체로 면접이 강화되는 의견을 개진함. 전문성 확대를 위해 자격연수 필요성과 연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현장실습의 필수과목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음. 청소년상담사 자격에 대해서도 청소년관련학과 졸업생에

대한 배려 필요성 제기가 많았고, 4년제 대학, 전문대 졸업생에 대해 각각 청소년상담사 2, 3급 부여 의견이 제시됨.

-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됨. 첫째, 필기검정 제도의 문제로 대체적으로 필기시험과목 폐지에 따라 과생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음. 둘째,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로 현장실습 과목의 필수화와 교과목에 대한 지침 부족, 실습기관 범위와 평가 지침 등의 부재를 지적함. 셋째, 면접시험의 문제로 면접시험의 비중이 낮으며 급수별 면접 내용에 차별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됨. 넷째, 연수 제도의 문제로 연수 시간이 부족하고, 이론중심의 교과편성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됨.

3.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

1)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공이수교과 강화

- 필기시험 면제가 시행되면서 매년 청소년지도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약화와 권위 추락이 현실화되고 있음.
-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필기시험을 부활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필기시험 면제 제도의 도입 2년 만에 또 다시 필기시험을 부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함.
-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학에서 이수해야 될 전공과목 수를 확대하고, 이수학점과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필기시험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과목수를 유지하더라도, 면제자에 대해서는 과목수와 학점 등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의 위상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현장실습, 면접, 연수 제도

- 대학 교과과정에서 현장실습 제도의 개편 방향으로 첫째, ‘청소년활동 현장실습’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둘째, 자격급수에 따른 현장실습시간과 필수적인 현장지도내용의 표준화, 셋째, 대학에서 실습교과목과 현장실습 구분 운영, 넷째, 대학 실습 지침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 제시, 다섯째, 청소년관련 서비스 기관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민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관련 실습기관 포함, 여섯째, 실습과목과 현장실습 평가항목 구성내용의 명확한 제시, 일곱째, 실습과목에 대한 교과개발 필요성 제기 및 현장실습과의 연계방안 연구 등이 제시됨.
- 면접 제도의 개편 방향은 첫째, 자격검정에서 면접시험 비중 확대, 둘째, 면접시험 과정과 내용의 다양화, 셋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분리를 통한 면접시험의 내실화, 넷째, 실기위주의 면접내용 강화, 다섯째, 급수별 면접 내용 차별화 등임.
- 연수 제도의 개편 방향은 첫째, 자격연수 목적의 명료화, 둘째,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전문화, 셋째, 보수교육의 필요, 넷째, 연수 의무화, 다섯째, 연수의 효과성 검증, 여섯째, 연수 시간의 확대, 일곱째, 자격연수 운영 형태의 다양화로 제시됨.

3) 청소년상담사 제도의 개편 방향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청소년분야의 대표적인 국가자격증임에도 그동안 청소년분야가 아닌 분야에 의해 선점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청됨. 첫째, 청소년상담사의 급수를 4년제 2급, 전문대 3급으로 조정해야 함. 둘째, 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을 청소년학 주요 교과로 최소한 50% 이상 구성해야 함. 셋째, 청소년상담사 시험 시기를 익년 4월에서 당해년 10월 또는 11월 중으로 변경해야 함. 넷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증위원회에 청소년관련학회 혹은 청소년관련학과 교수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1) 문헌 연구	6
2) 전문가 협의회	7
3) 설문 조사	7
II. 이론적 고찰	9
1.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11
1) 청소년지도사의 위상과 역할	11
2) 청소년지도사의 요구되는 자질	15
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변천 과정	18
1) 필기 검정 제도의 변천 과정	18
2) 면접 제도의 현황	19
3) 연수 제도의 변천 과정	22
3.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현황	25
1) 청소년지도사 양성 고등교육기관의 수적 팽창	25
2)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인원의 파격적 증가추세	26
3)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 숫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27
4) 통합아동·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사’ 전문직의 위기	27
5)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의 자격검정업무 이관 가능성 상존	29

III.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1
1.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방법	33
2. 분석 결과	34
1)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에 대한 의견	34
2)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에 대한 의견	41
3)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에 대한 의견	48
4) 청소년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57
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대한 의견	62
IV.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69
1. 필기검정 제도의 문제점	71
1) 전문선택영역 필기시험과목 폐지와 ‘기량함양’의 견인적 장치 상실	71
2) 자격검정과목의 축소 및 필기시험 면제와 ‘품성함양’의 견인적 장치 상실	72
3) 청소년지도자상(Vision)의 부재와 자격검정정책의 혼란	73
2. 현장실습, 면접, 연수 제도의 문제점	74
1) 대학 교과과정에서 현장실습의 문제점	74
2) 면접 시험의 문제점	77
3) 연수 제도의 문제점	79
V. 결론: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	81
1.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개편 방향	83
2. 현장실습, 면접, 연수 제도의 개편 방향	84
1) 대학 교과과정에서 현장실습 제도의 개편 방향	84
2) 면접 제도의 개편 방향	87
3) 연수 제도의 개편 방향	91
3. 청소년상담사 제도의 개편 방향	96
참고문헌	99
부 록	101

표 목 차

<표 II-1>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16
<표 II-2>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의 평가항목 및 내용	20
<표 II-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연수내용	22
<표 II-4> 2005년, 2006년 한국청소년수련원 전문연수 운영실적	23
<표 II-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주요 변천내용	24
<표 II-6> 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 현황(2007년 3월 현재)	26
<표 II-7> 자격검정 합격자 현황 및 향후 검정합격추정 인원	26
<표 II-8> 급수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 현황 및 예측	27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
<표 III-2>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학점이수 기준 강화	35
<표 III-3>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대한 과목수 조정 방안	35
<표 III-4>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대한 과목수 조정 방안	36
<표 III-5> 1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조정 방안	37
<표 III-6> 2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조정 방안	38
<표 III-7> 3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조정 방안	39
<표 III-8> 필기시험 부활	40
<표 III-9> 필기시험 부활에 대해 찬성 및 반대하는 이유	41
<표 III-10> 면접시험의 필요성	42
<표 III-11> 면접시험이 필요한 이유	42
<표 III-12> 면접시험이 불필요한 이유	43
<표 III-13> 피면접자 1인당 면접시간	44
<표 III-14> 1회 피면접자 인원수	44
<표 III-15> 면접시험 평가항목의 적절성	45
<표 III-16> 면접시험 평가항목의 부적절한 이유	46
<표 III-17> 면접시험의 탈락률	47

<표 III-18> 면접시험 개선 방안	48
<표 III-19> 자격연수의 필요성	49
<표 III-20> 자격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49
<표 III-21> 자격연수의 불필요성에 대한 이유	50
<표 III-22> 전문성 향상의 도움 정도	50
<표 III-23>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	51
<표 III-24> 자격연수 운영기관의 적절성	51
<표 III-25> 자격연수의 운영기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52
<표 III-26> 자격연수 기간의 적절성	52
<표 III-27> 자격연수 기간에 대한 대안	53
<표 III-28>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	54
<표 III-29> 자격연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대안	54
<표 III-30> 자격연수 운영시기의 적절성	55
<표 III-31> 자격연수의 운영시기에 대한 대안	55
<표 III-32> 운영방식	56
<표 III-33> 자격연수의 기능과 역할	57
<표 III-34> 교육과정의 표준화	58
<표 III-35> 교수요목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	58
<표 III-36> 교수요목의 개발 주체	59
<표 III-37>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59
<표 III-38> 현장실습의 적절한 시간	60
<표 III-39> 현장실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60
<표 III-40> 현장실습의 연계 및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	61
<표 III-41>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실습 일지의 표준화	61
<표 III-42> 급수별 자격검정 과목의 적절성	62
<표 III-43>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과목	63
<표 III-44>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과목의 이유	64
<표 III-45>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과목에 대한 대안	65
<표 III-46> 응시자격 조건의 적절성	66
<표 III-47> 응시자격 조건에 대한 대안	66
<표 III-48> 자격검정 시기의 적절성	67

<표 III-49> 자격검정 시기에 대한 대안	67
<표 III-50>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대한 개선안	68
<표 V-1> 모험개척-승마의 급수별 표준교육내용	93

그림 목 차

[그림 II-1] 청소년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자질	17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개정법령¹⁾에 기초, 2008년부터 자격관련 전공과목 이수자들에 대한 필기시험이 면제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검정과정과 관련하여 가히 파격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청소년 관련학과로의 유인효과가 높아지면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학과 뿐 아니라 사이버대학들과 방송대 등에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또는 자격검정관련 과정을 개설하는 곳이 급격히 증가하였다²⁾.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인원이 파격적으로 증가하였다³⁾.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전문영역 폐지로 인한 전문성 저하 위험이다.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시 청소년

-
- 1) 2005년에는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당시 청소년지도사 전문성강화를 위해 추가된 13개 전문선택영역을 특기능력에 대한 이론시험형태 검정이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과 시험문제의 변별력 및 과목 간 난이도 조절 등의 문제점 발생을 이유로 전문선택영역 이론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선택영역 폐지의 대안으로 자격연수를 20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하고 2급 및 3급의 응시자격 요건 중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에 대해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을 1년씩 더 추가(2급의 경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3급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응시자격을 강화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09).
 - 2) 2007년 3월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양성 고등교육기관은 18개 대학교, 6개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한국디지털대학, 12개 대학원으로 재학생수는 10,287명에 달하게 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09).
 - 3) 2008년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자격연수료 인원 기준)는 총 2,768명으로 2007년 915명 대비 3배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도 이러한 수준으로 증가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09).

지도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된 13개 전문선택영역 특기능력에 대한 이론시험형태 검정이 제도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시험문제의 변별력 및 과목간 난이도 조절 등의 문제점 발생을 이유로 2005년 개정 시 폐지되는 과정에서 전문성함양과 실기능력강화에 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이춘화·김영한·박철웅·이상진, 20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09).

이러한 변화는 2005년 개정법령에 따른 현행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에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실상 자격관련 전공과목 이수자들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는 학생들의 청소년 관련학과로의 유인효과 증가와 전문성 함양, 실기능력 강화는 물론 청소년지도사 자격자 인력풀 확대를 통한 청소년관련전문가의 수급 효율화를 기대하고 실시되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2005년 개정법령은 의도한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수급 불균형 문제는 물론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계에서는 이제까지의 청소년지도사 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국가자격검정시스템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자격연수인원의 급증 뿐 아니라,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청소년지도사의 과잉공급, 청소년지도사 고용시장의 확장,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른 전문 직업군의 자생적 환경강화를 위해서라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를 정립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 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개선방안은 국가자격검정 필기면제에 관한 대안방안, 면접 및 연수 실시 개편방향, 현장실습 도입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수정방안, 현장실습 도입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수정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연구는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청소년지도사가 명실상부한 청소년계를 대표하는 전문자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2. 연구 내용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청소년지도 자격제도의 정체성과 존재목표에 대한 비전에 대해 토의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방안 제시에 앞서 현재의 검정제도가 존립하는 근거에 대해 존재하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파악해보고 과연 청소년지도 자격제도를 개선하는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위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중요하고 원론적인 고민과 현재의 청소년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격검정 필기면제에 관한 대안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부분에는 청소년지도사가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으

로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강력하게 제기되는 필기부활, 이수교과 확대, 현장실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지도자격의 주된 개선방안의 또 다른 방향으로 현장실습 도입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수정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현장실습 도입에 관한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회적 요구와 현장실습 도입에 관한 타당성을 확보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현장실습 도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다음, 구체적으로 현장실습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법적, 제도적 후속조치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 관련 국가 자격이 명실상부한 청소년 전문자격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선행 연구 문헌을 통해 청소년 지도인력의 역할, 자격 검정 제도의 변천 과정,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체제와 검정제도 실태 등을 조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제도에 대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였다.

2) 전문가 협의회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회원 대학의 교수자 대표 12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 개편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3차례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세부 분과로 나누어 필기시험 면제, 면접 및 연수 제도, 실습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안을 제시하였다.

3) 설문 조사

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총 68명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된 39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에 앞서 설문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소집된 분과 회의와 2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설문내용 및 방법을 토의하였다. 설문지의 최종 원안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3.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현황

II. 이론적 고찰

1.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1) 청소년지도사의 위상과 역할

(1) 청소년지도사의 위상

청소년지도의 질적 발전은 전적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자질(전문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탁상행정식의 청소년지도나 행사중심의 일회성 청소년지도, 각종 매스컴이나 단체의 계몽과 선도차원의 청소년지도 등은 청소년지도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왜곡시키고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활동을 방해해 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개체의 발달 및 심리적 특성과 집단문화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분석하는 자이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자이며, 현장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며 평가할 수 있는 자이며, 일반 청소년 및 부적응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응 및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상담의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자이다. 청소년지도사의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지도자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한상철, 2004).

사실 하나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일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전문직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 ② 엄격한 자격기준, ③ 장기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 ④ 지성적 활동과 애타적(愛他的) 동기에서 비롯된 봉사활동, ⑤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 ⑥ 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천, ⑦ 자율적 전문 조직체의 구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지도의 전문성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하겠다. 먼저,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과연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직(의사, 변호사, 설계사, 교사 등)에서는 대학교의 관련 전공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확대해 나간다. 청소년지도사 양성 역시 대학의 전공학문을 더욱 강화할 때만이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자격검증 과정은 응시절차와 시험과목, 면접, 사후관리 등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공인 자격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응시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시험과목 선정과 문제출제 등의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며, 면접과 현장실습, 사후연수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 절차와 방법, 운영 과정 등을 상시 연구하고 관리하는 기구(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장기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이 전문직의 중요 기준이지만, 청소년지도사가 되기 위해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장기간의 전문적인 교육이 요청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물을 만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분야에서는 작은 실수가 경제적 손실로 귀착될 뿐이지만,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실수는 대상 청소년 개인과 집단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지성적 활동과 애타적 동기에서 비롯된 봉사정신 역시 전문직의 중요 기준이다. 현대 사회의 다른 어떤 전문가 집단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보다 청소년 분야에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봉사정신이 과연 지성적 활동과 애타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청소년지도사에게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청소년지도사들이 일용직으로 소속되어서 관리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기는 현실적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청소년지도사의 권익과 지위가 향상되고 전문성이 고양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섯째, 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천이 뒤따라야 됴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지도사 윤리강령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곱 번째 기준인 자율적 전문조직체 구성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2)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4가지 역할로 압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자(teacher)로서의 역할이다. 청소년지도사는 학교교육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습의 과정을 조력하는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안내하고 조력하는 사람이다. 교수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학습즉,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조력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과 유사한 표현으로는 조력자, 안내자, 촉진자 등이 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가 더 이상 청소년을 가르치고, 리더하고, 통솔하는 행위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적응을 위해 경험과 활동을 조직화하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안내하고 조력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학교교육에서 좋은 교사란 교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이 보다 잘 일어나도록 안내하고 조력하는 사람이다. 여행에서 가이드는 자신이 여행을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자들의 여행목적에 따라 길을 안내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청소년지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사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설계자 또는 개발자로서의 역할이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도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경험을 선정 및 조직하며, 평가하는 등의 전체 지도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설계안에 기초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교사는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 자신의 수업지도안만을 개발하여 수업에 임하면 되지만, 청소년지도사는 기관의 목적이나 참여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표나 안내책자와 같은 비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문서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부단한 학문적인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 과거에는 청소년의 개인적인 성격결함이나 개인의 생활사적 문제와 관련하여 원인을 찾고자 하였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민감하여야 하며, 사회의 구조적인 갈등 및 결함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회개혁자적인 태도와 자세가 요구되기도 하고, 사회봉사자로서의 숭고한 가치관도 필요하다. 청소년은 한 개체로 존재하기보다 지역사회 공동체 성원으로 존재하며, 청소년지도사 역시 사회공동체 성원이지만 공동체의 리더로서 역할과 사명감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 참여자로서의 역할이다. 청소년지도는 어쩔 수 없이 청소년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청소년관계법과 제도, 청소년기본

계획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앙 및 지방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따라서도 현장이 급변하는 모양새를 나타낼 만큼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관련법령이나 청소년관련제도 등에 민감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참여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이란 본시 의사결정 과정인데,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개진 등을 전제로 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부당한 결정이나 정책에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지도사의 요구되는 자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교육현장에 널리 통용되는 명제이다. 이것을 청소년교육 분야에 적용해 보면, 청소년교육의 질은 청소년지도자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지도력의 수준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성을 지니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지는 현장의 특성과 상황별로 각기 다르겠지만 청소년지도자로서 공통되는 자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주장자	한상철(2008)	이복희 외(2007)	한상철 외(2001)
요구되는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장 - 전문능력 · 지식 · 주변환경 지식 · 청소년지도 실제 · 기술 · 조정, 통합 기술 · 인간관계 기술 · 실무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장 - 교육자로서의 자질 - 일반적 자질 · 성숙한 판단력 · 성실성 · 변화에 대한 민감성 · 상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기술 - 인간관계 기술 - 의사소통 기술 - 의사결정 기술 - 상담 기술 - 연구 기술 -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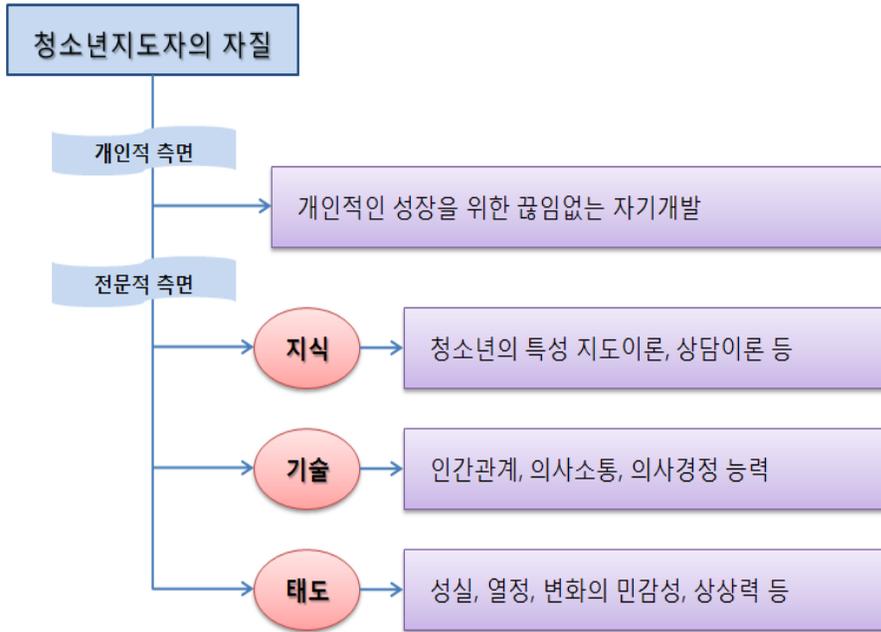
자료: 오승근(2008). 메지로우의 전환학습을 활용한 청소년지도자 양성프로젝트, p.1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자로서 자질은 크게 개인적 자질, 직무에서 요청되는 자질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자질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 개발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청소년지도자는 자신의 능력 개발과 함양을 통해서 청소년을 지도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전문성 함양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을 이끄는 전문직으로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지식적으로는 청소년과 지도 및 상담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기술로써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이 요청된다. 그밖에 정서적으로나 태도 면에서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청소년들에 따라갈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상상력 등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그림 II-1]과 같다.

학습자들은 예비 청소년지도자로서 이상에 요구되는 자질을 수업 과정 중에 함양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수업에서 지식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많고, 이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교/강사로부터 전달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요청되는 청소년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 기관 방문과 지도자와의 만

남, 특강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자질을 알고, 앞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II-1] 청소년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자질

자료: 오승근(2008), p.9.

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변천 과정

1) 필기 검정 제도의 변천 과정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제도의 도입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적극적 유도·조장, 지원과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구비한 지도자의 제도적 양성과 배치계획을 근간으로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에 그 근거를 둔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수료한 자나 또는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체제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로 1993년 처음으로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배출하게 되었다. 이후 1999년의 기본법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양성체계의 전면개편의 결과로 등장한 신제도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는 데, 바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의 개방화와 전문화이다. 지도사양성체계의 개방화는 규제개혁적 차원에서 문제시된 이수과정의 인원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전문화는 제 2차 청소년육성계획(1998-2002)의 핵심추진과제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체계 구축’ 과 ‘21세기 청소년상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사후 자격연수제도의 신설,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 연수제도 등이 바로 이런 한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등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필기검정제도와 관련하여 신제도에서 특기할 점은 1인 1기 전문특기 소지를 목적으로 한 검정 이론시험이 전문선택영역으로 추가보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후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시 청소년지도사 전문성강화를 위해 추가된 13개 전문선택영역 특기능력에 대한 이론시험 검정이 폐지되게 되는데, 이는 전문성 검정을 이론시험으로 실시하는데서 오는 문

제점과 시험문제의 변별력 및 과목 간 난이도 조절 등의 문제점 발생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2005년 개정법령은 자격검정의 과목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조정하고 등급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의 기본적 자질 및 능력을 검정 할 수 있는 기본필수 과목으로 조정하는 한편, 2008년 1월 1일 부터는 2급, 3급의 경우 대학에서의 시험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2) 면접 제도의 현황

(1) 자격 검정 합격 기준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1급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2급과 3급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자로 합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필기시험: 과목별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면접시험: 면접위원 3인 평점 점수 평균 10점(15점 만점)이상 득점 시 합격. 단, 면접위원의 2인 이상이 평가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점 점수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 1회 시험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받음.

(2) 면접 과정 및 채점

일반적으로 한 대기실에 50명 정도 입실하여 면접을 기다리게 된다. 면접장소의 특성이나 크기에 따라 1-20개 정도의 면접실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접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3명의 응시자가 한 면접실에서 함께 면접을 받게 된다. 각 면접관이 일반적으로 2-5개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된다.

아래의 각 평가항목에 대해 3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면접위원 3인의 평점 평균이 10점(15점 만점) 이상이었을 때 합격으로 처리된다. 단, 면접위원의 2인 이상이 평가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점 점수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3) 평가 내용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5가지 사항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표 II-2 참조>).

<표 II-2>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의 평가항목 및 내용

항목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 청소년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바람직한 청소년지도자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지도사와 학교 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지도에 있어서 특별한 철학이나 접근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 청소년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항목 2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는 법, 말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 표현하는 언어는 어떠한가?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 및 긍지는 어떠한가? -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항목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음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십시오. - 요즘 청소년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범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 중 성인들이 인정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항목 4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중 하나를 제시하고, 생각을 말해보시오.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수련거리 중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청소년들의 생활특성 중 또래집단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불법취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 가출청소년의 선도방안 및 예방대책은? - 미성년자 성매매의 원인과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 어려운 청소년(저소득층 청소년, 장애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에게 시급한 대책은? - 약물중독, 인터넷 중독 등 문제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 자신이 책임자가 되어 청소년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가? - 우리나라 청소년시설의 문제점과 대책은?
항목 5	창의력과 의지력 및 지도력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의 방향은? -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평소 생각은?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시오.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 청소년지도에 활용할만한 자신의 개인적 특기는? - 청소년을 지도할 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개인적 능력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3) 연수 제도의 변천 과정

(1) 청소년지도사의 위상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연수제도를 도입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요구되는 연수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법률은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기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21조에서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혹은 대상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하거나 통합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연수과정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연수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에서는 연수의 내용(제38조)이 시행령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기는 하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연수내용

-
1.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기본소양
 2. 안전사고 예방·대처 및 청소년수련활동 실기 지도
 3.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현장 또는 시설견학
 4. 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방안
 5. 기타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주요 변천내용을 연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2002년까지 10년 동안은 사전연수제도가 실시되었다. 사전연수제도는 일단 사전연수를 받은 사람만이 자격검정에 임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 후 1999년 법령개정과 더불어 사전연수제도가 폐지되고 사후연수제도인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시행된 종전 사전이수과정의 폐지로 나타날 수 있는 양성체제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자질과 전문성 제고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김영한, 2007). 자격검정과목 전문선택 영역의 13개 과목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면서 40시간 이상의 전문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청소년관련 단체 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영한, 2007). 1999년 신제도 시행 3년 뒤인 2002년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는 총 5회 12종 23과정의 시범 연수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05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서는 전문연수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연수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2005년 청소년관련법령의 개정 이후 국가의 직접적 경비지원에 의한 전문연수는 폐지되었으며, 다만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자체예산 편성에 의한 전문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4> 2005년, 2006년 한국청소년수련원 전문연수 운영실적

	중앙수련원		평창수련원	
	횟수	개설과정 수	횟수	개설과정 수
2005년	4회	13개 과정	3회	3개 과정
2006년	5회	16개 과정	3회	3개 과정
계	15회 35개 과정			

<표 II-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주요 변천내용

구분	1993년 시행	1999년 개정	2005년 개정
시행 년도	1993-2002년*	1999-2005년	2006년 이후
등급	1•2•3급	1•2•3급	1•2•3급
양성 체제 특성	-사전연수제도 -양성기관 지정 (대학 및 청소년단체) ※사전연수 후 자격검정	-사전연수제도 폐지 -23급에 13개 전문선택 영역추가(전문성강화) -응시자격 개방체제 ※자격검정후 합격자연수	-23급 전문선택 영역 폐지 -대학에서 시험과목 이수자 필기시험 면제(2008년) -시험과목 조정, 응시자격 강화, 배치기준 강화 ※자격검정후 합격자 연수
응시 자격	사전연수 이수 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양성 인원	인원 제한	인원제한 없음	인원제한 없음
연수 기관	사전 연수	대학의 청소년(지도)학과, (이수과정 면제)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
	자격 연수	-	-자격연수 선택 : 한국청소년개발원 (’99-’01) -자격연수 의무 : 한국청소년수련원 (’22-’05)
검정 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취득 현황	4,706명	7,946명	
기타	-	-	청소년육성전담기구설치 및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자료: 김영한(2007).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3.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현황

1) 청소년지도사 양성 고등교육기관의 수적 팽창

1999년 기본법령의 개정을 기점으로 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체제 개방 및 검정(이수)과목 축소⁴⁾와 이후 2005년 개정법령⁵⁾에 기초, 2008년부터 시행된 자격관련 전공과목 이수자들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로 학생들의 청소년 관련학과로의 유인효과가 높아지면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학과 뿐 아니라, 사이버대학들과 방송대 등에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또는 자격검정관련 과정을 개설하는 곳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007년 3월 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양성 고등교육기관은 18개 대학교, 6개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한국디지털대학, 12개 대학원으로 재학생수는 10,287에 달하는 수치를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은 확대국면을 넘어서 과잉증대의 양상으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4) 1999년의 기본법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양성체제의 전면개편의 결과로 등장한 신제도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의 개방화와 전문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양성체제의 개방화는 규제개혁적 차원에서 문제시된 이수과정의 인원제한 문제의 해결과 청소년지도사의 안정적 공급을, 전문화는 제 2차 청소년육성계획(1998-2002)의 핵심추진과제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 체육중심의 수련활동체계 구축’ 과 ‘ 21세기 청소년상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1인1기 전문특기소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검정 이론시험의 전문선택영역 보완, 사후 자격연수제도의 신설,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 연수제도 등이 소위 ‘신제도’의 특징이다.
- 5) 2005년에는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당시 청소년지도사 전문성강화를 위해 추가된 13개 전문선택영역을 특기능력에 대한 이론시험형태 검정이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시험문제의 변별력 및 과목 간 난이도 조절 등의 문제점 발생을 이유로 전문선택영역 이론을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선택영역의 폐지의 대안으로 자격연수 20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하고 2급 및 3급의 응시자격 요건 중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에 대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을 1년 씩 더 추가(2급의 경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3급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하여 응시자격을 강화하였다.

<표 II-6> 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 현황(2007년 3월 현재)⁶⁾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고	
대학교(18)	3,273	894	819	839	721		
전문대학(6)	1,938	996	942	-	-		
방송대학(1)	4,293	0	1,911	1,986	396		
디지털대(1)	366	110	118	114	24		
합계	9,870	2,000	3,790	2,939	1,141		
구분	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대학원	417	138	70	93	93	19	4

2)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인원의 파격적 증가추세

자격검정이론시험이 면제되고 면접고사 또는 자격연수를 통한 수급조절기능이 미미한 상황 하에서 청소년지도인력 양성체제의 팽창 현상은 청소년자격검정 및 자격연수 인원의 파격적 증가 현상으로 직결된다. 2008년도를 기점으로 청소년자격연수 인원은 완만한 점진적 증가에서 수직적(vertical)인 증가추세로 들어서는 국면전환점(turning point)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8년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자격연수 수료 인원 기준)는 총 2,768명으로 2007년 915명 대비 3배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도 연 $3,000 \pm \alpha$ 의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7> 자격검정 합격자 현황 및 향후 검정합격추정 인원

년도	1급	2급	3급	년도 별 총인원
2006	90명	792명	366명	1,248명
2007	183명	701명	183명	915명
2008	27명	2,107명	633명	2,768명 ⁷⁾
2009	-	-	-	$3,000 \pm \alpha$ 명
2010	-	-	-	$3,000 \pm \alpha$ 명

6) 기 통계는 2007년 3월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기초한다.

7) 2008년도에는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한 총 인원은 4,063명 이었으며, 이중 2,770명이

3)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 숫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들 역시 매년 3,000명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10년 초에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만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고, 3년 뒤 2013년에는 30,000 ± α 명으로 2009년 3월 17, 588명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8> 급수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 현황 및 예측⁸⁾

연도별	급수 별 누계			총 누계
	1급	2급	3급	
2007년 3월	1235명	7561명	5104명	13,900명
2008년 3월	1,266명	8,262명	5,292명	14,820명
2009년 3월	1,293명	10,369명	5,925명	17,588명
2010	-	-	-	21,000± α
2011	-	-	-	24,000± α
2012	-	-	-	27,000± α
2013	-	-	-	30,000± α

4) 통합아동·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사' 전문직의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정책을 위한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시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법률안의 통과 이후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과 관련한 흐름이다. 개정 법률(안)에 '청소년지도사'라는 고유한 전문직종과 자격증을 지켜내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지도사의 자격명칭 변경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의 개정 법률(안)의 법 논리상 청소년지도사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지도사'로 변경될 충분한 당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에 참여하여 최종 2,768명이 자격연수를 수료하였다.

8) 본 자료의 현황은 2007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조사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 현황(2006년까지의 자격증 소지자 현황)에 2007년, 2008년도 자격검정 최종 수료자를 포함한 수치이며, 2010 이후의 예측치는 연간 4,000명의 청소년지도사 증가추세를 전제로 계산한 것임

의 명칭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를 고수하는 입장은 법이 통과되고 그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면 점점 불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소년시설의 기능이 아동청소년활동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통합 기관 명칭이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점과 향후 모든 국립청소년활동시설에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뿐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과 더불어서 아동 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정부정책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육성지원사업의 대전제가 아동의 범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업으로 강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아동청소년통합정책추진에 의한 국립기관과 시설의 명칭과 기능 변경 및 정부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은 여타 공공 및 민간 청소년 시설과 단체의 기능과 역할 및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립시설 이외의 청소년 시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명칭 그대로 존속하게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설명칭의 변경에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이나 기관의 명칭 뿐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의 내용과 운영 프로그램이 청소년과 아동을 포괄해야하는 현장의 상황변화와 여론이 아동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청소년관련학과에 아동관련 교과목의 개설을 강하게 압박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취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학교운영을 위해서 법령을 근거로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 전공명칭의 변경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거나, 청소년학과와 아동학과의 병존하는 경우에는 학과 통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청소년관련 전공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도 않거니와, 법 논리상 명분이 크지도 않다. 이에 청소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증의 명칭의 고수는 여전히 불리한 상황인 바, 향후의 난관을 예측하며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의 특수성과 고유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명칭을 유지하면서 개정법률(안)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자격검정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의 자격검정업무 이관 가능성 상존

현재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격검정업무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도 주요 환경변수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이해, 애착 및 가치에 대한 인식이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같을 리 없을 것임도 명심하여야겠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자격검정 업무가 이관 될 경우,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 및 검정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계의 자발적 개혁기회와 주도권이 상당부분 상실되면서, 청소년, 청소년지도사의 특수성보다는 국가자격의 수준과 보편성, 경제성의 원리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발적 자정의 여유시간이 많지 않음을 주지하고, 효과적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개편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Ⅲ.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방법
2. 분석 결과

Ⅲ.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방법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에 포함된 총 20개 대학, 소속학과 전임교수 68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설문에 응답을 요청하였고, 각 대학별로 학과 장님을 통해 설문 조사 협조를 의뢰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9부로 응답률은 57.4%였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현재 안식년 중에 있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청소년 관련 비전공 교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번 설문조사는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분석방법은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하였고, 주관식 응답은 연구자들이 유사한 내용을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교수들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6명(66.7%)이었으며, 여자는 13명(33.3%)으로 나타났다. 소속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31명(79.5%)이었으며, 2년제 전문대학에 소속된 교수 4명(10.3%),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에 소속된 교수는 4명(10.3%)이었다. 전공별로는 교육학이 19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심리학 9명(23.1%), 사회학 5명(12.8%) 등의 순이었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남	26	66.7
	여	13	33.3
소속 대학	4년제 대학	31	79.5
	전문대학	4	10.3
	원격대학	4	10.3
전공	교육학	19	48.7
	심리학	9	23.1
	사회학	5	12.8
	가족학	2	5.1
	기타(정치학, 사회복지학, 청소년문화 및 행정)	3	7.8
계		39	100.0

2. 분석 결과

1)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에 대한 의견

(1)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학점이수 기준 강화

현행 청소년관련학과 졸업(예정)생들을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 면제제도가 유지될 경우,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학점이수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4.4%로 ‘반대한다’는 응답(25.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학점이수 기준 강화

구분		빈도	백분율
학점이수 기준 강화	찬성	29	74.4
	반대	10	25.6
계		39	100.0

(2)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이수 과목수 조정 방안

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대한 과목수 조정 방안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대한 과목수 조정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의 과목수 유지’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목 확대’가 44.7%, ‘과목 축소’는 5.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과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현재의 과목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대한 과목수 조정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현재 과목수 유지	19	50.0
과목 확대	17	44.7
과목 축소	2	5.3
계	38	100.0

②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대한 과목수 조정 방안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대한 과목수 조정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의 과목수 유지’라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목 확대’가 41.0%, ‘과목 축소’는 7.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과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현재의 과목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대한 과목수 조정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현재 과목수 유지	20	51.3
과목 확대	16	41.0
과목 축소	3	7.7
계	39	100.0

③ 급수별 자격검정 과목에 대한 조정 방안

가. 1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에 대한 조정 방안

1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추가해야 할 과목과 삭제해야 할 과목을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과목을 추가해야 할 경우 청소년상담과 이해에 해당하는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2.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정책론 등은 각각 11.1%로 조사되었다.

<표 III-5> 1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조정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1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추가	청소년상담과목	2	22.2
	청소년이해론	2	22.2
	청소년문화정책론	1	11.1
	청소년복지	1	11.1
	청소년심리및상담	1	11.1
	청소년인성지도론	1	11.1
	청소년심리 혹은 청소년문화 중 추가	1	11.1
계		9	100.0
1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삭제	청소년연구방법론 삭제	2	50.0
	청소년인권과참여 삭제	1	25.0
	청소년정책론과 청소년기관운영을 통합	1	25.0
계		4	100.0

나. 2급 청소년지도사 과목에 대한 조정 방안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추가해야 할 과목과 삭제해야 할 과목을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추가할 과목으로 ‘청소년지도현장실습’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학개론’이 11.5%, ‘청소년교류론’과 ‘청소년환경론’이 각각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중 삭제 및 대체할 경우 ‘청소년심리및상담을 분리하여 실시하자’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문화와 활동을 통합하자’는 응답이 10.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 2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조정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2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추가	청소년지도현장실습	8	30.8
	청소년학개론	3	11.5
	청소년교류론	2	7.7
	청소년환경론	2	7.7
	청소년연구방법론	1	3.8
	레크리에이션 활동지도	1	3.8
	청소년심리검사	1	3.8
	대안교육론	1	3.8
	청소년진로지도	1	3.8
	청소년집단지도론	1	3.8
	지역사회교육론	1	3.8
	청소년인성지도론	1	3.8
	청소년리더십개발론	1	3.8
	청소년기관운영	1	3.8
	청소년지도자론	1	3.8
계	26	100.0	
2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삭제 및 대체	청소년심리및상담을 분리	10	50.0
	청소년문화와 활동을 통합	2	10.0
	청소년심리및상담 삭제	1	5.0
	청소년문제와보호 삭제	1	5.0
	청소년지도방법론과활동을 통합	1	5.0
	청소년문제와보호 중 보호 삭제	1	5.0
	청소년지도방법론과 프로그램개발과평가를 통합	1	5.0
	청소년육성제도론 삭제	1	5.0
	청소년활동 삭제	1	5.0
	청소년육성론을 청소년정책론으로 대체	1	5.0
계	20	100.0	

다. 3급 청소년지도사 과목에 대한 조정 방안

3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추가해야 할 과목과 삭제해야 할 과목을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추가할 과목으로 ‘청소년지도현장실습’이라는 응답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야외교육’이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중 삭제 및 대체할 경우 ‘청소년심리및상담을 분리하자’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육성제도를 삭제하자’는 응답이 14.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7> 3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조정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3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추가	청소년지도현장실습	4	22.2
	야외교육	3	16.7
	청소년환경론	2	11.1
	청소년지도자론	2	11.1
	청소년학개론	1	5.6
	청소년심리검사	1	5.6
	청소년비행 또는 청소년범죄	1	5.6
	대안교육론	1	5.6
	청소년국제교류	1	5.6
	청소년인성지도론	1	5.6
	청소년리더십개발론	1	5.6
계	18	100.0	
2급 청소년지도사 과목 삭제 및 대체	청소년심리및상담을 분리	5	35.7
	청소년육성제도를 삭제	2	14.3
	청소년문제와보호 삭제	1	7.1
	청소년문화와 활동을 통합	1	7.1
	청소년지도방법론과 활동을 통합	1	7.1
	청소년육성제도를 청소년정책론으로 대체	1	7.1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삭제	1	7.1
	청소년지도방법론과 프로그램개발과평가를 통합	1	7.1
청소년활동론 삭제	1	7.1	
계	14	100.0	

(3) 필기시험 부활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강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부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반대’ 라는 응답이 60.5%로 ‘찬성’ 한다는 응답 39.5%보다 더 많았다.

〈표 III-8〉 필기시험 부활

구분	빈도	백분율
찬성	15	39.5
반대	23	60.5
계	38	100.0

필기시험 부활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위상 승격을 위해’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라는 응답이 각각 4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분적으로 찬성’과 ‘수급조절 필요’라는 응답이 각각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기시험 부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존 교과과정의 평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격 검정 이수과목을 강화해야 한다’와 ‘현행제도가 일정 경과한 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각각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 필기시험 부활에 대해 찬성 및 반대하는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찬성 이유	위상 승격을 위해	6	42.9
	전문성을 위해	6	42.9
	부분적으로 찬성	1	7.1
	수급조절 필요	1	7.1
계		14	100.0
반대 이유	기존 교과과정의 평가 활용	7	38.9
	자격 검정 이수과목의 강화	3	16.7
	현행제도의 일정 경과 후 논의가 바람직함	3	16.7
	필기시험으로 우수한 지도자를 발굴할 수 없음	2	11.1
	청소년관련 자격의 활성화를 위해	2	11.1
	조건부 반대	1	5.6

2)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에 대한 의견

(1) 면접시험의 필요성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면접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9.2%로 ‘불필요하다’는 응답(30.8%)보다 더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면접시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II-10> 면접시험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27	69.2
불필요하다	12	30.8
계	39	100.0

① 면접시험이 필요한 이유

면접시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기시험 대체로 활용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접시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수들 중 상당수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소년지도사가 지녀야 할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표 III-11> 면접시험이 필요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18	85.7
필기시험 대체로 활용하기 위해	3	14.3
계	21	100.0

② 면접시험이 불필요한 이유

면접시험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현행 면접시험은 형식적이므로 의미가 없다’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격취득 과목수의 확대와 현장실습 강화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접시험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수 중 상당수가 현행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II-12> 면접시험이 불필요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현행 면접시험은 형식적이므로 의미가 없음	7	63.6
자격취득 과목수의 확대와 현장실습 강화로 대체할 수 있음	2	18.2
현행 다른 국가자격은 면접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1	9.1
대학 교과평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됨	1	9.1
계	11	100.0

(2) 피면접자 1인당 면접시간

피면접자 1인당 면접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5분 - 1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분 - 15분 미만’ 31.6%, ‘15분 - 20분 미만’이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면접자 1인당 면접시간으로 5분에서 10분 미만과 10분에서 15분 미만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I-13> 피면접자 1인당 면접시간

구분	빈도	백분율
5분 미만	3	7.9
5분 - 10분 미만	16	42.1
10분 - 15분 미만	12	31.6
15분 - 20분 미만	4	10.5
20분 이상	3	7.9
계	38	100.0

(3) 1회 피면접자 인원수

1회 피면접자 인원은 몇 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3명’이라는 응답이 7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명’이 13.2%, ‘4명’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수들이 1회 면접시 피면접자의 적정 인원은 3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14> 1회 피면접자 인원수

구분	빈도	백분율
1명	2	5.3
2명	5	13.2
3명	28	73.7
4명	3	7.9
계	38	100.0

(4) 면접시험 평가항목의 적절성

면접시험의 평가항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의 응답이 ‘부적절’의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다른 평가항목의 경우보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표 III-15> 면접시험 평가항목의 적절성

구분		빈도	백분율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적절	36	92.3
	부적절	1	2.7
계		37	100.0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적절	32	86.5
	부적절	5	13.5
계		37	100.0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적절	36	97.3
	부적절	1	2.7
계		37	100.0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적절	35	94.6
	부적절	2	5.4
계		37	100.0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	적절	27	73.0
	부적절	10	27.0
계		37	100.0

면접시험 평가항목의 부적절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16>과 같다. 각 평가항목 중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이라는 평가는 필기시험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을 평가함에 있어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I-16> 면접시험 평가항목의 부적절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기 어려움	1	100.0
	계	1	100.0
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가의 어려움	1	20.0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기 어려움	1	20.0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신자세도 포함되어야 함	1	20.0
	면접자의 주관에 의해 크게 영향	1	20.0
	현장검증이 필요함	1	20.0
계	5	100.0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음	1	100.0
계	1	100.0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필기시험으로 검증 가능	2	100.0
계	2	100.0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기 어려움	6	66.7
	측정평가의 어려움	2	22.2
	현장검증이 필요함	1	11.1
계	9	100.0	

(5) 면접시험의 탈락률

면접시험의 탈락률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10% 미만’과 ‘10% 이상~20%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3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 이상~30% 미만’ 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리 비율을 정해 놓아서 안된다’는 기타 의견은 2.7%로 조사되었다.

<표 III-17> 면접시험의 탈락률

구분	빈도	백분율
10% 미만	12	32.4
10% 이상 ~ 20% 미만	12	32.4
20% 이상 ~ 30% 미만	9	24.3
30% 이상 ~ 40% 미만	3	8.1
40% 이상	-	-
기타	1	2.7
계	37	100.0

(6) 면접시험 개선 방안

면접시험의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피면접자수를 줄이고 면접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각 지역을 권역별로 설정하여 면접 실시’와 ‘엄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응답이 각각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면접시험 개선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피면접자수를 줄이고 면접시간 확대	7	25.9
각 지역을 권역별로 설정하여 면접 실시	3	11.1
엄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 필요	3	11.1
표준화된 면접시험 문항을 예시로 면접	2	7.4
청소년지도현장실습의 강화	2	7.4
합격자만 면접 실시	1	3.7
집단활동 혹은 집단 상담을 통한 면접	1	3.7
피면접자의 개인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	1	3.7
면접 위원 추천시 지방과 서울간 공평한 추천 필요	1	3.7
구술면접과 심층면접을 병행	1	3.7
지도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검토 문항 추가	1	3.7
면접제도 폐지 후 재교육 등 실시로 대체	1	3.7
1급은 보다 엄격하게 하되 2급과 3급은 현행 유지	1	3.7
심층면접과 함께 일정비율의 탈락률 담보	1	3.7
면접을 자격연수와 연계하여 시행	1	3.7
계	27	100.0

3)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에 대한 의견

(1) 자격연수의 필요성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84.6%로 ‘불필요하다’는 응답보다(15.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수들이 자격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표 III-19〉 자격연수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33	84.6
불필요하다	6	15.4
계	39	100.0

① 자격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자격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수 중 그 이유를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다. 자격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수들 중 대다수가 자격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20〉 자격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12	66.7
자격연수를 통해 면접시험을 대체해야 함	1	5.6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상황의 적응을 위해서	1	5.6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1	5.6
취업을 하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최종 점검 차원에서 필요함	1	5.6
공동체의식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1	5.6
새로운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	5.3
계	18	100.0

② 자격연수의 불필요성에 대한 이유

자격연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수들 중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습과목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행의 연수기간으로는 전문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자격연수의 불필요성에 대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실습과목으로 대치 가능	3	50.0
현행의 연수기간으로는 전문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	2	33.3
직장관련 업무 등의 불편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1	16.7
계	6	100.0

(2) 전문성 향상의 도움 정도

기존에 사용되었던 자격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3.7%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의 26.3%보다 더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자격연수를 통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II-22〉 전문성 향상의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도움이 되었다	28	73.7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	26.3
계	38	100.0

자격연수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자격연수 이수 기간이 짧다’는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는 ‘기존 교과외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응답(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3	33.3
자격연수 이수 기간이 짧음	3	33.3
기존 교과외의 반복에 지나지 않음	2	22.1
일회성의 진행으로 한계가 있음	1	11.1
계	9	100.0

(3) 자격연수 운영기관의 적절성

현행 자격연수의 운영기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4.2%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의 15.8%보다 많았다. 현재 1·2급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3급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각각 실시되고 있는 자격연수에 대해 많은 교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24〉 자격연수 운영기관의 적절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하다	32	84.2
적절하지 않다	6	15.8
계	38	100.0

자격연수의 운영기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각 지역의 공립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표 III-25〉 자격연수의 운영기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각 지역의 공립시설을 활용해야 함	2	40.0
숙박 없이 서울 소재의 수련관을 활용해야 함	1	20.0
한 곳으로 일원화를 해야 함	1	20.0
상호교차하여 운영해야 함	1	20.0
계	9	100.0

(4) 자격연수 기간의 적절성

현행 3박 4일로 진행되고 있는 자격연수의 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9.0%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의 41.0%보다 더 많았다.

〈표 III-26〉 자격연수 기간의 적절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하다	23	59.0
적절하지 않다	16	41.0
계	39	100.0

현행 자격연수 기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I-27>과 같다.

<표 III-27> 자격연수 기간에 대한 대안

구분	빈도	백분율
기간을 연장해야 함	9	73.3
기간을 축소해야 함	2	13.3
1차 기초교육, 2차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해야 함	1	6.7
기간을 분할하여 실시해야 함	1	6.7
계	15	100.0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연수 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수들 중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5)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

현행 자격연수에서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7.1%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의 42.9%보다 많았다. 자격연수 프로그램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기는 하였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과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었다.

〈표 III-28〉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하다	20	57.1
적절하지 않다	15	42.9
계	35	100.0

현행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I-29>와 같다. ‘실천 현장을 고려한 연수의 강화’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선택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천 현장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I-29〉 자격연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대안

구분	빈도	백분율
실천현장을 고려한 연수의 강화	8	61.5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선택 참여가 가능해야 함	2	15.4
전문성 강화와 대폭적인 개편 필요	1	7.7
기존 교과외 반복에 지나지 않음	1	7.7
다양한 연수내용 및 강사진이 필요함	1	7.7
계	13	100.0

(6) 자격연수 운영시기의 적절성

현행 11월말에서 12월 중순에 실시되고 있는 자격연수의 운영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67.6%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보다(32.4%) 더 많았다.

<표 III-30> 자격연수 운영시기의 적절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하다	25	67.6
적절하지 않다	12	32.4
계	37	100.0

현행 자격연수의 운영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I-31>과 같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90.9%로 ‘11월말부터 다음해의 2월까지의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보다(9.1%) 더 많았다. 자격연수의 운영시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 중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III-31> 자격연수의 운영시기에 대한 대안

구분	빈도	백분율
겨울방학을 이용해야 함	10	90.9
11월말부터 다음해의 2월까지의 기간을 이용해야 함	1	9.1
계	11	100.0

(7) 운영방식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청소년관련교수협회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I-32>와 같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89.7%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10.3%) 더 많았다. 새로운 운영방식에 대해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2> 운영방식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하다	35	89.7
적절하지 않다	4	10.3
계	39	100.0

(8) 자격연수의 기능과 역할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직무능력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 보수교육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자격연수의 기능과 역할

구분	빈도	백분율
직무능력 강화 등의 프로그램 도입	14	53.8
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 보수교육으로 전환	3	11.5
표준화된 교재, 프로그램, 교수진 구성	2	7.7
지역단위의 연수프로그램 도입	1	3.8
현재의 운영프로그램에 큰 문제가 없음	1	3.8
공동체의식과 혁신적인 내용 보완	1	3.8
자격연수 폐지	1	3.8
자격연수 통해 부적격자 탈락 시스템 도입	1	3.8
자격연수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1	3.8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교과과정 개발	1	3.8
계	26	100.0

4) 청소년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1) 교육과정의 표준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에 대해서 관련대학의 교육과정을 표준화시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33.3%)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표 III-34〉 교육과정의 표준화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26	66.7
필요하지 않다	13	33.3
계	39	100.0

① 교수요목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면, 이수과목별 표준화된 교수요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5>와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96.2%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8%)보다 훨씬 더 많았다.

〈표 III-35〉 교수요목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25	96.2
필요하지 않다	1	3.8
계	26	100.0

② 교수요목의 개발 주체

과목별 표준화된 교수요목이 필요하다면, 표준화된 교수요목은 누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I-36>과 같다.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기타’의 응답이 각각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교수요목의 개발 주체

구분	빈도	백분율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12	5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17.4
기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청소년관련 학회)	4	17.4
청소년관련 학회	2	8.7
청소년관련 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합	1	4.3
계	23	100.0

(2)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 는 응답이 87.2%로 ‘반대한다’ 는 응답(12.8%)보다 더 많았다.

<표 III-37>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찬성한다	34	87.2
반대한다	5	12.8
계	39	100.0

① 현장실습의 적절한 시간

현장실습 의무화에 찬성한다면, 현장실습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38>과 같다. ‘총 151시간 - 180시간’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총 91시간 - 120시간’ 31.0%, ‘총 60시간 이하’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현장실습의 적정한 시간

구분	빈도	백분율
60시간 이하	4	13.8
61시간 - 90시간	1	3.4
91시간 - 120시간	9	31.0
121시간 - 150시간	3	10.3
151시간 - 180시간	10	34.5
181시간 이상	2	6.9
계	29	100.0

② 현장실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현장실습의 의무화에 찬성한다면, 현장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39>와 같다.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고, 현장실습을 지도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응답이 82.4%로 가장 많았다.

〈표 III-39〉 현장실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구분	빈도	백분율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고, 현장실습을 지도해줄 수 있는 기관	28	82.4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1	2.9
대학별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1	2.9
국·공립 수련시설과 사립의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인력을 고려해야 함	1	2.9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 필요함	1	2.9
표준화된 실습보고서나 실습평가서가 필요함	1	2.9
실질적 업무에 대한 실습 및 교육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1	2.9
계	34	100.0

③ 현장실습의 연계 및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

현장실습 의무화에 찬성한다면, 현장실습기관과 각 대학의 실습생을 연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III-40>과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55.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44.1%)보다 더 많았다.

<표 III-40> 현장실습의 연계 및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19	55.9
필요하지 않다	15	44.1
계	34	100.0

④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실습 일지의 표준화

현장실습의 의무화에 찬성한다면, 현장실습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실습 일지를 표준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41>과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81.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8.2% 보다 더 많았다.

<표 III-41>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실습 일지의 표준화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27	81.8
필요하지 않다	6	18.2
계	33	100.0

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대한 의견

(1) 급수별 자격검정 과목의 적절성

현행 급수별 자격검정 과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는 <표 III-42>와 같다. 1급과 2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73.7%로 ‘부적절하다’는 응답(각각 26.3%)보다 더 많았다. 3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서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67.6%로 ‘부적절하다’는 응답(32.4%)보다 더 많았다.

<표 III-42> 급수별 자격검정 과목의 적절성

구분		빈도	백분율(%)
1급 청소년상담사	적절하다	28	73.7
	부적절하다	10	26.3
계		38	100.0
2급 청소년상담사	적절하다	28	73.7
	부적절하다	10	26.3
계		38	100.0
3급 청소년상담사	적절하다	25	67.6
	부적절하다	12	32.4
계		37	100.0

(2) 급수별 자격검정의 부적절성

①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 과목

현재의 급수별 자격검정과목이 부적절할 경우 부적절한 과목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I-43>과 같다. 1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과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수련활동론’과 ‘학습이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II-43>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과목

구분		빈도	백분율(%)
1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	2	40.0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2	40.0
	상담자교육 및 사례지도	1	20.0
계		5	100.0
2급 청소년상담사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3	60.0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1	20.0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1	20.0
계		5	100.0
3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수련활동론	2	22.2
	학습이론	2	22.2
	발달심리	1	11.1
	청소년이해론	1	11.1
	집단상담의 기초	1	11.1
	심리측정 및 평가	1	11.1
	청소년이해론	1	11.1
계		9	100.0

②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과목의 이유

<표 III-44>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과목의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1급 청소년 상담사	현 과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	4	50.0
	청소년관련법은 2급에서부터 필요	1	12.5
	검정과목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 포함	1	12.5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을 청소년정책론으로 유지	1	12.5
	지나치게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됨	1	12.5
계		8	100.0
2급 청소년 상담사	현 과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	4	44.4
	청소년분야의 자격증임에도 일반상담 영역의 과목을 적용 부적절	1	11.1
	검정과목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포함	1	11.1
	청소년관련 검정과목이 추가	1	11.1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를 상담연구방법론 교체	1	11.1
	전문가양성에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교과 부적합	1	11.1
계		9	100.0
3급 청소년 상담사	현 과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	3	27.3
	청소년관련 검정과목 추가	1	9.1
	상담과 활동은 거리가 있음	1	9.1
	검정과목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 포함	1	9.1
	청소년이해와 발달심리가 중복 우려	1	9.1
	정책변화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1	9.1
	집단상담의 기초를 집단상담으로 변경	1	9.1
	학습이론을 청소년관련 과목으로 대체	1	9.1
	일부 과목 중 2급, 3급 중복	1	9.1
계		11	100.0

1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과목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 과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2급 청소년상담사에 대해서도 ‘현 과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3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현 과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다. 각 급수별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과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수들은 현 자격검정 과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담보할 수 없다는데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③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과목에 대한 대안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과목에 대한 대안으로 1·2·3급의 청소년상담사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급수별 부적절한 자격검정과목에 대한 대안

구분		빈도	백분율
1급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과목 추가	6	66.7
	청소년 용어의 추가	2	22.2
	청소년이해와 관련된 과목을 포함시켜야 함	1	11.1
계		9	100.0
2급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과목 추가	5	62.5
	청소년 용어의 추가	2	25.0
	상담연구방법론으로 대체	1	12.5
계		8	100.0
3급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과목 추가	10	62.2
	청소년 용어의 추가	3	18.9
	청소년수련활동 대신 청소년이해론으로 대체	1	6.3
	청소년이해론을 청소년심리로 대체	1	6.3
	집단상담의 기초를 집단상담으로 대체	1	6.3
계		16	100.0

(3) 응시자격 조건의 적절성

현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조건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8.4%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21.6%)보다 더 많았다.

<표 III-46> 응시자격 조건의 적절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하다	29	78.4
적절하지 않다	8	21.6
계	37	100.0

응시자격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47>과 같다. ‘청소년관련학과 졸업생들을 배려한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급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응시자격 조건에 대한 대안

구분	빈도	백분율
청소년관련학과 졸업생들을 배려한 방향으로 수정 필요	4	50.0
3급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응시자격 부여	2	25.0
청소년지도사 응시 조건과 동일한 자격 요건 적용 필요	1	12.5
4년제 대학졸업자 2급 응시, 전문대 졸업자는 3급 응시	1	12.5
계	8	100.0

(4) 자격검정 시기의 적절성

현행 4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7.9%로 ‘적절하다’는 응답 42.1%보다 더 많았다. 현행 자격검정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격검정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III-48> 자격검정 시기의 적절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하다	16	42.1
적절하지 않다	22	57.9
계	38	100.0

자격검정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49>와 같다. ‘겨울방학 기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재학생의 재학기간’(4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자격검정 시기에 대한 대안

구분	빈도	백분율
겨울방학 기간으로 조정	11	50.0
재학생의 재학기간으로 조정	9	40.9
졸업생의 준비기간을 고려 5월 중으로 연기	1	4.5
10월 - 12월에 필기시험, 겨울방학 중 연수 실시	1	4.5
계	22	100.0

(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대한 개선안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문대 졸업자를 배려해야 한다’와 ‘과목 및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8.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연수 기간의 축소와 인력 확대 그리고 과목 및 자격의 재검토 등을 해야 한다는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50>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대한 개선안

구분	빈도	백분율
전문대 졸업자 배려	2	18.2
과목 및 자격을 재검토	2	18.2
연수기간의 축소 필요	1	9.1
상담사 인력 확대	1	9.1
대학에서 일정과목을 이수할 경우 2급 자격증을 부여, 시험 전형 거쳐 1급 자격증 부여	1	9.1
청소년지도사와 동일하게 운영	1	9.1
청소년관련학과와 유기적인 관계 설정	1	9.1
졸업예정자의 취업 및 진학 등을 고려 조정	1	9.1
청소년관련학과의 전문 자격증으로 전환	1	9.1
계	11	100.0

IV.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1. 필기검정 제도의 문제점
2. 현장실습, 면접, 연수 제도의 문제점

IV.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1. 필기검정 제도의 문제점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에 그 근거를 두고 도입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시스템의 확충,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적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전문 직종으로써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부각시키는데 공헌한 바가 지대하다고 본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의 기량과 품성함양’을 근간으로 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균형 있는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필기시험을 포함한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제도의 변천사는 한마디로 퇴보의 역사로 평가된다.

1) 전문선택영역 필기시험과목 폐지와 ‘기량함양’의 견인적 장치 상실

그 퇴보의 역사 시점은 1999년 기본법 개정 시 청소년지도사 전문성강화를 위해 추가된 13개 전문선택영역 특기능력에 대한 필기시험과목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음에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특기능력 시험을 이론으로 치른다는 원래의 발상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바는 아니지만, 전문선택영역의 폐지의 대안으로 등장한 자격연수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하고 2급 및 3급의 응시자격요건 중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에 대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을 1년 씩 더 추가하여 응시자격을 강화⁹⁾하는 방안이 청소년지도사 기량함양을 위한 적절하며 충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문선택영역 필기시험과목 폐지라는 문제의 본질은 하나의 과목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사의 기량함양을 위한 정책적 상징성이 퇴색한 것과 청소년지도사의 조기진로설정 및 현장실기능력 배양을 위한 제

9) 2급의 경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3급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

도적 견인장치가 사라지게 된 데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지도자의 균형 있는 성장의 장애가 이 시점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 자격검정과목의 축소 및 필기시험 면제와 ‘품성함양’의 견인적 장치 상실

이후 2005년 개정법령에서는 자격검정의 과목수를 전체적으로 축소·조정하고 등급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의 기본적 자질 및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기본필수 과목으로 조정하는 한편, 2008년 1월 1일 부터는 2급 3급의 경우 대학에서의 시험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청소년지도사의 기량함양의 견인적 장치 상실에 이어서, 품성함양의 견인적 장치를 상실하면서 청소년지도사의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과제는 대안 없는 미완의 과제로 공중의 부유물처럼 떠돌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문제의 본질은 필기시험면제가 아니다. 전문직종의 지식적 정체성, 즉 전문적 지식의 표준과 평균수준을 유지하며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상실된 것이 문제이다. 이론필기시험의 과목들 뿐 아니라, 이론시험의 소재들과 주제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와 출제 포인트 등은 많거나 적게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적 시금석으로 교과과정과 내용의 질적 특성과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의 지식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이다. 필기시험제도의 지식적 정체성 유지·견인기능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들을 주지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바로 청소년관련학과 내 교과목 및 교육내용의 혼란대두와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의 지식 평균수준의 하락이다. 이는 2008년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이후 면접관들의 공통된 의견에서도 밝히 드러난다.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예전과 비교할 때 면접대상자 중 더 많은 수가 청소년지도사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지식적 품성에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지도사의 기량함양을 위한 견인장치 상실에 이은 품성함양을 위한 견인장치의 상실로 청소년지도사

의 균형 있는 성장정책은 더욱 요원해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론적인 배경도 약하고 전공실기 능력도 떨어진 반면 무능력자 양산의 위기와 인적자원의 질적 하락으로 인한 시장의 불신의 위기, 취업률 하락, 청소년전공자들의 청소년전공 선택기피 현상이라는 악재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3) 청소년지도자상(Vision)의 부재와 자격검정정책의 혼란

필기시험제도를 포함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지도사의 상(象, Vision)에 대한 규정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다.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청소년지도자 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청소년지도 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미션을 도출한 뒤, 이러한 미션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법의 개정과 자격검정정책을 만들어나가는 합리적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더욱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국가청소년육성의 대계인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상은 늘 존재했지만, 청소년지도자 상은 보이지 않거나, 이에 대한 고민은 지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사 만큼 중요한 요인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 키우는데, 사람만큼 중요한 인자가 어디 있겠는가? 원리적으로 보면 청소년육성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청소년지도사이기에 청소년지도사의 균형 있는 성장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육성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체계가 대단히 비합리적이든지, 청소년지도사는 허울뿐인 제도 그 자체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2. 현장실습, 면접, 연수 제도의 문제점

1) 대학 교과과정에서 현장실습의 문제점

2008년을 기준으로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모두 32개교이며 이들 학교에서 총 48개의 청소년전공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아동청소년백서, 2008). 이 곳에서는 모두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¹⁰⁾. 그러나 청소년관련학과인 경우에도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과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격취득과정을 동시에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학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격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목만을 개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교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지정하느냐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논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때, 대학에서 ‘청소년활동 현장 실습’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습과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아동이나 가족관련학과, 사회복지관련학과, 교육관련학과 등에서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다. 이 경우 자격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목만을 개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필수과목을 어떻게 지정하느냐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의 실습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습과목이 현재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학교도 있지만, 선택과목이거나 또는 개설되어 있지 않는 학교도 있다. 또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학점관리 역시 일정한 규정이 없는 데 어떤 학교는 학점을 부여하고 있거나, 어떤 학교는 Pass/Fail로 이수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실습에 대한 교과목 및 현장실습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실습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과 제안이 있는 데, 이 중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실습교과목과 현장실습을 혼용해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현장실습 이전에 학생은 실습의 필요성, 실습과 관련한 필수적인 전문기술/교육(예, 실습지 작성, 실습활동 보고, 수퍼비전 등) 등에 대한 선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실습은 이러한 실습과목의 선지식을 토대로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등 전문성과 현장능력을 실제로 익히고 배우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장실습에 있어서 실습기간(실습시간), 실습지도교수, 실습비, 수퍼비전, 실습성적평가에 대한 공통된 지침이 현재 부재하다.

현재, 현장실습이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몇몇 학교의 경우에도 실습기간이나 실습시간, 실습지도교수의 유무, 실습비 지급 여부, 수퍼비전의 유형(예,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습보고서, 실습일지, 실습평가서(초기, 중간, 종결, 기관분석), 실습성적평가(예, 1학점, 2학점, Pass/Fail)에 대한 각

대학마다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매우 다르고 이것은 청소년관련학과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청소년지도사의 현장능력 및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도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별적인 잣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실습현장(실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각 학교마다 매우 다양하며, 또한 실습기관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하다.

각 청소년관련 학과가 위치한 지역 특성과 역사성, 학과 네트워크에 따라서 실습기관의 유형과 선택의 폭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습이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주로 수련활동에 편중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예, 청소년관련 연구소 및 학회,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민간단체, 청소년관련 공공서비스 및 복지기관 등)에서는 청소년학과 학생의 소수 또는 거의 실습기회를 갖기 어렵다. 반면, 대다수 청소년학과에는 여학생들이 많으며, 이들 중 청소년관련 서비스 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현장실습 및 향후 직업현장으로 실습을 원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습기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여타 청소년관련 서비스 기관에서의 실습지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습지도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실습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지침이 없다.

현재 실습과목 및 현장실습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습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지침이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실습과목에 대한 평가가 각 학교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장실습 또한

학교재량이나 학과 재량권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약 실습과목과 현장실습이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을 위한 필수로 지정될 경우, 실습과목과 현장실습의 요건과 내용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면접 시험의 문제점

1999년 기본법령의 개정을 기점으로 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체제 개방 및 검정(이수)과목 축소와 이후 2005년 개정법령에 기초, 2008년부터 시행된 자격관련 전공과목 이수자들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로 학생들의 청소년 관련학과로의 유인효과가 높아지면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학과 뿐 아니라, 사이버대학들과 방송대 등에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또는 자격검정관련 과정을 개설하는 곳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박철웅, 2009). 2007년 3월 말 현재 청소년지도사 양성 고등교육기관은 18개 대학교, 6개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한국디지털대학, 12개 대학원으로 재학생수는 10,287에 달하는 수치를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은 확대국면을 넘어서 과잉증대의 양상으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박철웅, 2009).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면접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는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육성하는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사물이나 물자를 다루는 인력을 선발하는 것과는 다른 질적이고 깊이 있는 면접과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면접 시험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면접 시험의 중요성과 비중이 지극히 적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 과정에서 면접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다. 전체 응시자의 수와 탈락률, 면접시험 응시자 수와 탈락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시험이 어느 정도 응시자의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양상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격검정 과정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거의 모든’ 응시자가 면접시험을 통과한다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즉, 응시자가 면접시험을 통해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따라서 면접시험은 일종의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둘째, 형식적인 과정과 내용을 통해 면접시험이 시행된다.

첫 번째의 문제점과 연결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사의 면접시험이 상당히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 면접시험은 일반적으로 3명의 면접관에 의해 3명 이상의 응시자가 동시에 평가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대학에서의 신입생 선발이나 기타의 자격증 과정(예: 청소년상담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피면접자에게 질문이 할당되는 시간은 극히 적고, 앞서 제시된 극히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이 질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같은 날 시행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고 있다. 응시자들은 필기시험이 끝난 후(보통 오전에 끝낸 후), 곧바로 오후부터는 면접시험에 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

로서는 본인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면접 시험에 응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면접관으로서는 면접하는 대상이 1차 관문인 필기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면접자와 피면접자 모두 면접시험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고, 합격에 대한 변별력에서 민감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급수별 면접의 내용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의 세 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각 급수별로 구분된 전문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급수에 따라 자격검정을 위한 이수과목과 필기시험 과목도 차이가 있고, 배출된 청소년지도사가 현장에 배치될 때의 기준 또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는 급수별 구분이 없이 면접내용이 제시되고 특별한 급수별 구분이 없이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응시자들이 각 급수별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변별할 수가 없다.

3) 연수 제도의 문제점

첫째, 전문선택영역 폐지에 따른 대안책 실행의 미비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된 13개 전문선택영역을 특기능력에 대한 이론시험형태 검정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시험문제의 변별력 및 과목 간 난이도 조절 등의 문제점 발생을 이유로 2005년 개정 시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아 청소년지도사 전문성 강화에 차질이 생겼다. 전문선택영역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시행되고 있는 자격연수 20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으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연수 프로그램의 문제

연수에서는 청소년지도사들이 그들만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이 그동안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과목과 자격검정과목을 이수하고, 실습과목을 이수했어도 부족한 것들을 중심으로 연수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가 자질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나, 보통이라는 응답도 높은 편이고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1급과 2급에서 비교적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함병수 외, 2004).

또한, 자격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면 이론중심의 교과편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론중심의 교과편성이나(한국청소년수련원, 2006; 함병수 외, 2004), 전문적인 기능습득 기회 부족, 연수생 자에 토론 및 세미나 등의 기회부족이라는 응답도 많은 편이었다(함병수 외, 2004).

셋째, 연수시간의 부족

한국청소년수련원의 2006년 자격연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연수시간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들은 ‘연수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힘들었다’, ‘현장실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정보교류의 시간이 짧았다’ 등 시간부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연수 희망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30시간에 만족하는 청소년지도사는 1급 22.1%, 2급(1차 29.5%, 2차 19.8%, 3차 7.7%), 3급 12.6%뿐이었고, 대부분 더 많은 연수시간을 원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기존의 연수시간으로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V. 결론: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

1.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개편 방향
2. 현장실습, 면접, 연수 제도의 개편 방향
3. 청소년상담사 제도의 개편 방향

V. 결론: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

1.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개편 방향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과 연수만으로 합격자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전공학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고, 현장실습 및 경험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각 대학의 유사전공 학생들이 복수전공 및 부전공, 평생교육과 학점은행제도,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필요한 최소 과목(2급 8개, 3급 7개)만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을 면제받음으로써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약화는 물론이고 위상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 2년 만에 청소년지도사의 양적 팽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격검정과정의 면접을 담당해 본 사람이라면 그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토로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지도사의 정체성 및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필기시험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계 스스로 필기시험 면제를 요청하여 실현된 것을 2년 만에 다시 부활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비추어지거나 신뢰성에 타격을 받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를 수용하여 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필기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에서 전공과목을 현행보다 더 많이 이수하고, 학점과 시간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4.4%의 교수들이 학점이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수 과목수의 확대에 대해서는 유지와 확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축소는 찬성이 거의 없다.

현재 2급의 경우 지정된 8개 과목만 이수하면 누구나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청소년관련전공학과에서 각 교과를 전공한 교수들에 의해 최소 10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점과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분야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유사 자격증으로 거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은 2급의 경우 14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학점과 시간도 과목마다 3학점(3시간)으로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전공자들의 진입을 더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학과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보다 더 많은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전공이수 교과와 학점 및 시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필기시험 응시자들에게는 현행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현장실습, 면접, 연수 제도의 개편 방향

1) 대학 교과과정에서 현장실습 제도의 개편 방향

첫째, 국가검정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기준에 ‘청소년활동현장실습’ 과목을 필수과목 지정하는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제기한대로, 경쟁력 강화가 대학의 가장 큰 과제인 요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하나의 교과과정 내에 다양한 자격취득과정을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목만을 개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에 대한 필수과목지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자격급수에 따라 현장실습시간과 필수적인 현장지도 내용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현재, 1급, 2급, 3급으로 자격급수가 나누어져 있는 데, 현장 실무능력의 향상과 함께 급수별로 현장실습의 내용과 시간, 수퍼비전이 구별되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현장에서 자격급수에 따른 현장실습지도에 대한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까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현장실습지도를 위한 급수별 실습훈련 내용과 수퍼비전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보수교육이 또한 필요하다.

셋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실무능력을 제대로 키워주려면 실습교과목과 현장실습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습교과목에서의 학점 이수에 대한 지침, 현장실습에서의 실습생, 실습담당지도자(수퍼바이저), 실습담당교수(대학 담당관 및 교수) 간의 역할과 학점 이수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자격검정의 하나로서 대학에서 이수하는 실습에 대한 지침, 즉, 실습기간(실습시간), 실습지도교수, 실습비, 수퍼비전, 실습성적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청소년관련학과 학생, 학교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도 일관된 실습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한 선임연구위원(2009년)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장실습의 목적과 목표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의 공동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관련 서비스 기관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민간단체도 청소년지도사 관련 실습기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다수의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의 주요한 대상이 청소년

이다. 특히, 자원봉사관련단체의 경우는 청소년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도 청소년관련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도 또한 반대로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예, 청소년수련기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실습기관으로 인정하고 현장실습경험을 쌓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재 청소년관련 학과에서는 오히려 청소년학과 관련 실습기관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고 있어서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영역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실습과목과 현장실습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경우는 청소년관련학과, 실습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할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평택대학교에서는 실습평가에 있어서 기관평가 60%, 학교평가 40%, 또는 기관평가 70%, 학교평가, 30%, 산업체평가(6회~8회/40시간)를 요구하고 있다. 평가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습과목에 대한 교과개발의 필요성과 현장실습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지도사를 위한 실습과목에 대한 교과개발에 있어서는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술, 수퍼비전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교육과 접목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실습지도의 과정론과 접근방법, 수퍼비전에 대한 이해와 평가 등이 현장학습의 관점에서 융합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실습현장에서 최소한의 필수이수시간에 이루어지는 실습활동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현장실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해 대학에서 청소년활동현장실습교과목을 개설하고 실습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국가가 자

격검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및 현장실무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욕구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각 학과가 처한 학교/학과 내 상황,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가능성, 주변 관련 기관/조직과의 네트워크의 유형 및 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습과목 및 현장실습 추진 안이 마련될 경우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사자격제도(예,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에서 보여지고 있는 전문성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강화의 추세에 비추어, 현재 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 교육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자격검정제도에서 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합일된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면접 제도의 개편 방향

첫째, 자격검정에서 면접 시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면접시험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검정과목 면제를 받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자격검정을 하는 경우 면접을 본다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응시자의 전면적인 당락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면접시험이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에서의 당락과 마찬가지로 면접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 자격증이 주어지는 수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면접 시험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즉, 매우 정교하게 구조화된 면접 시험을 통해 응시자에 대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면접 시험의 배점은 얼마로 할 것이진, 서류전형에

대한 평가가 점수화되어 반영되는지, 이 두 개의 전형요소를 다 반영한다면 반영비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면접 시험의 과정과 내용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했듯, 최근의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면접방식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상당수는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진두지휘하며 상당한 지도력과 활동력을 발휘해야 할 경우가 많은 전문가들이다. 이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의 구두면접을 통한 전문적 자질과 자세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통해 자질을 확인하는 것은 평가로서의 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특성이나 전문적 자질보다는 외형상(옷차림, 말투, 태도 등)의 적절성인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향후의 면접시험에서는 최소한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제시하게 하거나, 각 전문영역에 대한 전문적 내용을 구술시험 형식과 같이 면접하는 등의 다면화된 방법을 통해 응시자를 선별하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의 분리를 통해 면접 시험의 내실이 기해져야 한다.

현재처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와 가장 비교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와는 크게 다른 시행방법이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에 한 해 면접 시험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동일한 날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필기시험의 결과도 모르는

채 2차의 시험(면접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가뜩이나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면접시험을 더욱 빠른 시간에 해치우는 요식행위처럼 인식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필기시험을 치루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공지 받은 후 면접시험에 대한 별도의 준비 후 치르도록 하여 두 개의 관문이 분명히 구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기위주의 면접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청소년지도사는 지도사로서의 공통적인 전문성과 함께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기시험이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이론과 지식에 대한 검증이었다면, 면접에서는 실기에 대한 전문성 평가가 이뤄져야 이러한 역할수행에 적절한 응시자인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비록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후에 전문연수과정을 받은 후 자격증이 주어지지만, 전문연수는 이미 합격한 대상자에게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시자가 그 영역에서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를 가늠해 주지는 못한다. 특히 필기시험이 면제 된 응시자들의 경우 면접시험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평가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실기위주의 면접내용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면접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 응시자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자신의 경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실기위주의 프로그램을 지도해 본 경력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급수별 면접의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현재 급수의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면접시험은 청소년상담사의 면접과정과 비교할 때 역시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는 면접내용의 큰 항목에는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급수별 차이가 없지만, 일반적 면접내용과 병행되는 ‘사례면접’¹¹⁾의 경우에는 급수에 맞는 차별화된 사례내용을 제시하고 급수별로 이에 적절한 응답을 하는가를 평가하고 있다. 즉, 청소년상담사 1급은 다른 급수와 달리 수퍼비전이나 기관 운영의 업무를 맡게 될 전문가이고, 2, 3급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담당할 전문가이기 때문 각 급수별 응시자가 갖춰야 할 능력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지도사의 경우도, 1급은 (필기시험 과목의 상이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단체나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청소년 업무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인 반면, 2, 3급은 보다 실무적인 현장에서의 청소년지도를 담당할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 급수에 맞는 능력을 면접시험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급수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차별화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11)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응시자의 인간적 자질이나 태도 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청소년내담자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담자로서의 문제 파악, 대응전략, 상담기술 등을 응답하게 한다.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1, 2, 3급에 따라 면접내용에 차이가 없지만, 상담사례에 대해서는 1, 2, 3급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을 제시해서 급수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3) 연수 제도의 개편 방향

첫째, 자격연수 목적의 명료성 필요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의 목적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연수규정 어디에도 명백한 자격연수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자격연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 연수가 무엇을 위한 연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특화되지 못하고 포괄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연수를 받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연수에 대해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격연수의 목적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목적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방향과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전문화

기존의 자격연수에서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론적인 강의나 일회적인 활동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이 많이 있다. 우선 이론적인 강의는 자격연수에서 지양해야 한다. 이론적인 부분은 청소년지도사가 자격연수 이전에 습득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은 연수과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회적인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본다. 만일 몇 시간의 연수로 해당 활동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활동을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회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지도사는 오랜 시간 습득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전문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문성은 연수를 통해 습득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대학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함으로써 습득할 수도 있다.

생활관수련시설에서 몇몇 프로그램들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다. 대부분 기획적인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의 전문기술은 주로 강사를 쓰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가 각각의 프로그램의 전문교육을 매번 맡기란 어렵다(예를 들어 승마, 난타 등등).¹²⁾

그러나 청소년지도사는 오랜 시간 습득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전문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문성은 연수를 통해 습득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대학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함으로써 습득할 수도 있다.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근거를 다음의 주장에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박철웅(2004b)은 앞으로의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지도사가 천체 및 우주과학을 부전공하거나 우주활동 프로그램 관련 해외연수나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연수의 고급화, 전문화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승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12) 이하 편지체로 작성된 내용은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연수에 대한 청소년지도사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명지대학교 석사과정의 최성민 학생이 도움을 주었다.

<표 V-1> 모험개척-승마의 급수별 표준교육내용

전문성 급수	급수별 표준교육내용
초급	신장정보, 좌속보, 경속보, 단축구보
중급	기존종합마술, 승마활동모니터 평가, 외승을 위한 훈련, 안전한 낙마법, 지상교육, 그룹외승수칙, 말의 습성 이해, 습보적응훈련
고급	조교를 위한 기승, 말 만들기, 말의 질병과 치료, 말의 발굽관리와 장애, 쾌적한 마방 만들기, 안전한 승마활동을 위한 운동장 만들기, 효과적인 운동장 이용, 마상재를 위한 지상훈련

자료: 박철웅(2004a). 청소년지도사 연수제도 개선안.

연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예전에 한번 진행되려다가 말은 것으로 아는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문연수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영상전문 연수를 한번 다녀온 사람들을 위해 다음 차수에는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는 지도과정 또는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자격증도 통합으로 가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사가 노인, 청소년, 아동, 실버 등 다양한 분야를 하는 것처럼 청소년지도사도 아동 보육 등 아동분야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문화에 관한 적응태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매년 청소년문화는 다르고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개념과 연구, 교육에 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셋째, 보수교육의 필요성

연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자격연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유사 자격증인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 2, 3급 자격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급 91.1%, 2급 79.1%, 3급 74.6%가 필요하다고 했다(박철웅, 2004a). 이것은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사들이 자격취득 후에도 그들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교육은 필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 주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연수의 의무화

전문연수에 대한 법적 지원이 폐지된 후,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개설된 전문연수에 참가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많지 않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자격연수처럼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함병수 외(2004)의 연구에 의하면, 연수 참가의 문제점으로 가장 큰 것은 담당 업무 대체요원의 부족이었다. 결국 각 청소년관련 기관의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연수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직무보수교육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가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들 때문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제도적인 관점으로 2년에 한번 씩은 의무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의무화를 했는데 보수교육을 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자격정지를 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현장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4박5일이라는 시간을 빼 중만큼 여유가 있는 기관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실제로 전문연수를 가보면 매번 오는 기관에서는 자주 오지만 한 번도 못 오는 기관은 전문연수를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 편이다. 그리고 기관의 수장 또는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규정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참가비도 본인부담인 경우도 있다. 읍, 면 단위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하는 지도사도 있기 때문에 연수를 온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수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따로 교육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다섯째, 연수의 효과성 검증 필요

연수 참가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참여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수를 진행시켰다. 물론 참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연수의 효과성을 검증했다고 할 수 없다.

여섯째, 연수 시간의 확대

현재의 자격연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함병수 외(2004)의 연구에서는 전문선택영역 검정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청소년지도사, 학생, 교수 모두 전문선택영역을 폐지한 후 연수를 강해야 한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격연수 희망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30시간에 만족하는 청소년지도사는 1급 22.1%, 2급(1차 29.5%, 2차 19.8%, 3차 7.7%), 3급 12.6%뿐이었고, 대부분 더 많은 연수시간을 원했다. 2005년 전문연수의 정부지원을 폐지하면서 자격연수 시간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렸으나 이것만으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데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유사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자격연수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점과 청소년상담사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시간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곱째, 자격연수 운영 형태의 다양화

현재 자격연수는 급수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지도사들은 현재와 같이 급수별로 실시되는 자격연수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대상 특성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하는 청소년지도사들도 있기 때문에 자격연수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국청소년수련원, 2006). 함병수 외(200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지도사들은 급수별과 대상특성별로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반응비율을 보였다. 학생은 급수별보다는 대상특성별로 운영하는 것을 더 선호한 반면, 전문가는 그 반대로 급수별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청소년상담사 제도의 개편 방향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과 더불어 청소년분야의 대표적인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청소년분야가 아닌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에 선점당해 옴으로써 오히려 상담분야에서 청소년계가 소외당하는 이상 현상을 보여 왔다. 예컨대, 청소년상담사 시험응시조건으로 지정과목을 이수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관련학과는 기존 등재된 학과명(청소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과 이름이 약간 다르다고 하여 성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가 하면, 교육학이나 사회복지학과 등의 학생들은 무조건 관련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역차별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분야의 국가자격증으로 그 명성을 회복해야 할 때이며, 상담학자 양성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사 양성이라는 자격증의 기본취지를 되살려야 할 때이다. 이번 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상담사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첫째, 청소년상담사의 급수를 조정해야 한다. 현행 1, 2, 3급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가 아닌 상담학자를 뽑는 과정이라고 할 만큼, 학부졸업생은 3급, 석사졸업생은 2급, 박사급은 1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학벌위주와 관련 학문중심의 체제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들과 가장 쉽게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나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도할 수 있는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이 최소한 2급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중등학교 교사자격증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과 같이 학부졸업생이 3급을 취득하고, 전문대학 졸업생은 응시자격도 주지 않는 것은 전문성과도 거리가 멀고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는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을 조정해야 한다. 현행 과목들은 모두 심리학과나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학의 주요 교과가 최소한 50% 이상 구성됨으로써 청소년학과의 중심 자격증으로 전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정책 등의 과목은 상담연구방법보다 청소년상담사에게 더 유용한 과목이다.

셋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증 시험 시기를 익년 4월에서 당해 10월 또는 11월 중으로 변경해야 한다.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은 당해 졸업예정

자의 경우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며, 익년 4월경에는 관련 기관에 적응하기 위해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4월에 시험을 보면 졸업 이전에 준비했던 것도 망각이 일어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학습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심리학과나 교육학과 등의 학생들이 전적으로 상담사 시험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자격증 시험이 응시자들의 편의와 취업 희망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증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증위원회에 청소년관련학회나 교수님들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자격검증위원회에 청소년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더 많이 포함됨으로써 자격검증과정에 청소년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국가청소년위원회 법령집.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백서.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미간행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 I(종합보고서).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검토 자료(미간행 자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2~2003).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운영결과보고서(미간행 자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5).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6). 2005년 종합운영보고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7). 2006년 종합운영보고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자격연수 교과과정개발 연구.
- 김영한(2007).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한(200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개선 및 청소년관련학과 공통커리큘럼 개발 방향,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문성호(2001).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토론문, 한국청소년학회.
- 박철웅(2004a). 청소년지도사 연수제도 개선안,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 박철웅(2004b).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전문가의 역할과 전망,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철웅(2007).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제도개선을 통한 전문성 함양방안. 2007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개선 대토론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철웅(2009). 변화의 시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향, 청소년지도인력의 전문성강화방안 세미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오승근(2008). 메지로우의 전환학습을 활용한 청소년지도사 양성프로젝트. 제7회 전국 전문대학 교수-학습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 이복희·김종표·김지환(2008). 청소년교육론. 서울: 학지사.
- 최충욱 외(1998).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수련원(2006). 2006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결과보고.
- 한국청소년수련원(2007). 2007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결과보고.
- 한국청소년수련원(2008). 2008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운영위원회 회의자료(미간행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원(2009). 2007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 개선대책회의(미간행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청소년지도사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상철 외(2001). 청소년지도론. 서울: 학지사.
- 한상철(2008).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함병수 외(2004).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함병수·김경준·정익재·서정아(2004).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부 록

전문가 의견 조사지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제도의 정체성과 존재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자격검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국가자격검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국가자격검정시스템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국가자격검정 필기면제에 관한 대안방안, 현장실습 도입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수정방안,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대한 청소년관련학과의 위상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본 조사지에서는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에 대한 청소년관련학과 교수님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사결과는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되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면서도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 소 년 관 련 학 과 교 수 협 의 회

1.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중 필기시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시거나, 교수님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1. 현행 청소년관련학과 졸업(예정)생들을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 면제제가 유지될 경우,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학점이수 기준을 강화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 만약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급수별 이수과목수를 조정해야 한다면, 과목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현재의 과목수 유지	과목확대	과목축소
2-1. 2급 청소년지도사	①	②	③
2-2. 3급 청소년지도사	①	②	③

☞ 만약 급수별 자격검정 과목의 수를 확대(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현행 검정과목	추가, 삭제, 대체되어야 할 과목은?
2-3. 1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2-4. 2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2-5. 3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3.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강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부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1. 필기시험 부활에 찬성(혹은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II.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중 면접시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시거나, 교수님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면접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1-1. 면접시험이 필요(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이유는?

2. 피면접자 1인당 면접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_____ 분

3. 1회 피면접자 인원은 몇 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4. 면접 시험의 평가항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적절	부적절	부적절하다면 그 이유는?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①	②	
2.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①	②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①	②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①	②	
5.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	①	②	

5. 면접 시험의 탈락률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미만 ② 10%이상 ~ 20% 미만
 ③ 20%이상 ~ 30% 미만 ④ 30%이상 ~ 40% 미만
 ⑤ 40% 이상

6. 기타 면접 시험의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아래의 빈칸에 교수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1.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면, 이수과목별 표준화된 교수요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1-2로) ② 필요하지 않다(2번으로).

1-2. 과목별 표준화된 교수요목이 필요하다면, 표준화된 교수요목은 누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②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③ 청소년관련 학회 ④ 기타 (_____)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3-1로) ② 반대한다(V번으로).

2-1. 현장실습의 의무화에 찬성하신다면, 현장실습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_____ 시간

2-2. 현장실습의 의무화에 찬성하신다면, 현장실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2급이상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고, 현장실습을 지도해줄 수 있는 기관

2-3. 현장실습의 의무화에 찬성하신다면, 현장실습기관과 각 대학의 실습생을 연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3-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은?

4. 기타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아래의 빈칸에 교수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개인적 사항

1. 성 명 : _____
2. 소속대학 : _____
3. 소속학과 : _____

연구보고(수시과제)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인 쇄 2009년 12월 30일

발 행 2009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크리홍보 02)737-537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80-2(93330)